

中级韩国语

主编 崔羲秀 副主编 俞春喜 李敏德

下

중급한국어

중급한국어

ZHONGJIHANGUOYU

ZHONGJIHANGUOYU

中级韩国语

(下)

主 编 崔羲秀
副主编 俞春喜
李敏德

辽宁民族出版社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中级韩国语(下)/崔羲秀主编.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2.2

ISBN 7-80644-110-7

I. 中... II. 崔... III. 朝鲜语—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2)第 011590 号

辽宁民族出版社出版发行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政编码 110003)

沈阳市第三印刷厂印刷

字数: 200 千字 开本: 787×1092 1/16 印张: 13 1/4
2002 年 3 月第 1 版 2004 年 9 月第 3 次印刷

责任编辑: 权春哲

责任校对: 金正爱

封面设计: 杜 江

印数: 4001—7000

定价: 18.00 元

编写说明

《中级韩国语》(下)是《中级韩国语》(上)的继续。本教材与《中级韩国语》(上)保持连续性、系统性,通过学习,能了解韩国人的语言思维方式及文化传统,使读者对韩国语知识方面有进一步提高,增强语言的阅读与理解能力。

本书共14课,每课都由课文、词语、语法与语词用法说明及课后练习四部分组成,书后附有词语索引和语法索引。

本书重点培养学生阅读能力和自学能力。课后练习部分注重训练课文中出现的新的词语及语法现象,指出学生易犯的常见语病,并增加了阅读理解习题,以训练学生的阅读能力。本书收录了课文中出现的新的词语1,593个,语法条目95个。

本书在撰写过程中引用和参考了韩国和国内的有关教材和资料,在此不一一列举书名,谨表衷心的感谢。

在编写过程中,我们深感语言教材编写上的艰难,虽做了不少努力,书中难免有疏漏之处,请读者批评指正。

编者

2002年 1月 10日

차 례

제1과	제주도	1
제2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	12
제3과	한석봉과 어머니	25
제4과	세종대왕과 한글	37
제5과	건강과 공해	50
제6과	마지막 5분	62
제7과	독서의 방법	74
제8과	산딸기 맛깔스런 개성에서	86
제9과	꽃도 새도 내 가슴으로	99
제10과	자연의 맥박 철새들의 이동	112
제11과	인생은 살 만한 것이란다	124
제12과	무궁화	139
제13과	동백꽃(1)	153
제14과	동백꽃(2)	166
부록(1)		180
부록(2)		203

제1과

제 주 도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이면 이곳에 닿을 수 있다.

동서의 길이가 73km, 남북의 길이가 41km, 주위는 240km, 면적은 1,846km²의 고구마 모양으로 생긴 섬 중앙에 해발 1,950m의 한라산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섬은 전라남도에 속해 있다가 1946년 8월 15일에 제주도로 되었고, 1955년 9월에 제주읍이 제주시로 바뀌었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북쪽에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는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근해에는 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고장이자다. 겨울에도 밭에는 채소가 자라고 있고, 눈이 와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녹아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눈을 보기가 힘들고, 한라산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다.

제주도라 하면 삼다, 삼무를 생각하게 된다. 삼다란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것이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온 여자 관광객들이 가게에 들어가 머리 수건을 사서 쓸 만큼 바람이 세다. 이런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해 집들은 돌로 지었고, 담도 돌로 높이 쌓았다. 지붕도 육지에서 보는 초가지붕과는 다르다. 한라산에서 나는 “새”로 지붕을 덮었는데 바람 때문에 그 위를 튼튼하게 새끼줄로 엮었다. 그리고 어느 집이나 굴뚝이 없는데,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이라고 한다.

제주도에 돌이 많은 것은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돌은 검고 구멍이 많고 점착성이 있어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돌담을 쌓을 수 있다. 이런 돌로 논, 밭 그리고 묘지까지 돌담을 쌓아 놓았다.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바다와 친해지지 않을 수 없다. 남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거나 육지로 나가니까 눈에 띄이는 것은 여자들뿐이다.

그래서 여자가 많다고 했을 것이다.

또 제주도를 삼무도라고도 하는데, 삼무란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통금 시간을 없앴 것을 보아도 도둑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둑, 거지가 없으니까 대문도 필요 없을 것이다. 대문 대신 담과 담 사이 출입구에 긴 나무 섯을 걸쳐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집이 빌 때, 말이나 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이 걸쳐놓은 나무 섯의 한 쪽을 다 내려놓았을 때는 집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라는 표시이고, 둘을 내려놓았을 때는 가까운 곳에 나갔다가 곧 돌아온다는 표시이고, 하나만 내려놓았을 때는 조금 멀리 갔다가 저녁 때쯤 돌아온다는 표시라고 한다.

제주도라고 하면 지금까지 삼다, 삼무를 생각하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오다, 삼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감귤과 유채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노란 감귤이 주렁주렁 달린 감귤 나무를 보고 싶어서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감귤나무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감귤나무를 심지 않는다. 제주시보다 기후가 더 온화하고 바람이 그리 세지 않은 서귀포에 가야만, 감귤나무를 볼 수 있다. 서울의 시장에 나오는 감귤이 다 이 서귀포에서 나는 것이다.

제주도에는 논이 별로 없고 밭이 많은데, 그 밭에는 채소보다 유채가 많다. 유채도 제주시 쪽에 있는 것보다 서귀포 쪽에 있는 것이 더 빨리 자란다. 노란 유채화가 한창일 때 제주도에 착륙하는 비행기를 멀리서 바라보면 나비가 유채화에 날아와 앉는 것 같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제주도는 화산섬이라고도 불렀다. 그래서 화산 때문에 생긴 천연적 용암굴도 많고, 또 아름다운 바위도 많다.

천연 기념물 제98호인 김녕굴은 깊이 375m, 높이 13m, 넓이 10m이다. 이 굴은 김녕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김녕굴이다. 그런데 이 굴속에는 큰 뱀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이 굴은 김녕사굴이라고 한다.

이 사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만장굴이 있다. 만장굴은 이름 그대로 평

장히 긴 굴로 깊이가 약 7km이다. 이런 굴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보는 것이 더 좋겠다.

词 语

섬(명)島
 동서(명)东西
 면적(명)面积
 중앙(명)中央, 中部
 한라산(명)汉拿山
 속하다(동,자)属于
 제주시(지명)济州市
 근해(명)近海
 고장(명)地方
 관광객(명)旅游者, 参观者
 쌓다(동,타)砌, 筑
 새(명)茅草、紫芒等的总称
 엮다(동,타)编
 화산섬(명)火山島
 시멘트(명)水泥
 묘지(명)墓地
 도둑(명)小偷
 통금(명)禁止通行
 감귤(명)柑橘
 비행장(명)机场
 온화하다(형)暖和, 温和
 한창(부)正, 正是时候
 나비(명)蝴蝶
 용암굴(명)熔岩窟
 기념물(명)纪念物
 전설(명)传说

김포(지명)金浦
 남북(명)南北
 고구마(명)地瓜
 해발(명)海拔
 전라남도(지명)全罗南道
 제주읍(지명)济州邑
 서귀포(지명)西归浦
 난류(명)暖流
 채소(명)蔬菜
 수건(명)头巾, 手巾
 초가지붕(명)茅草屋顶
 새끼줄(명)草绳
 굴뚝(명)烟囱
 점착성(명)粘着性
 돌담(명)石牆, 石埂
 삼무도(명)三无岛
 거지(명)乞丐
 출입구(명)出入口
 유채(명)油菜
 주렁주렁(부)(果实)累累
 유채화(명)油菜花
 착륙하다(동,자)着陆
 천연적(명)天然的
 바위(명)岩石
 굴(명)窟
 사굴(명)蛇窟

만장굴(명)万丈窟
희귀하다(형)稀有, 珍贵, 少有
사용하다(동,타) 使用
대신(명) 代替, 反而^{대신} ~하다(동,타)

굉장히(부)非常, 异常, 盛大
백문이불여일견(성구)百闻不如一见
덮다(동,타)盖
사방(명)四方

语法与语词用法说明

1. -기가

“-기가”是体词形语尾“-기” + 格助词“-가”结合而成的复合形态。用于谓词(动词, 形容词)词干后面, 强调其前面的动作、状态成为说明的对象。如:

- ㉮ 여기서눈을 보기가 힘들다.
(在这里很难看到雪。)
- ㉮ 이런 산굴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这样的山洞很难用语言描述。)
- ㉮ 이곳은 찾기가 쉽지 않다.
(这里不易找到。)

2. -다고(复合语尾)

“-다고”是终结语尾“-다” + 表示引用的助词“-고”结合而成的复合语尾。用于形容词词干或表示时制的语尾“-았/었/였”后面表示如下意思:

- 1) 当做连结语尾。以“-다 라고”, “-다 하고”表示引用别人的话。如:

- ㉮ 그래서 여자가 많다고 했을 것이다.
(所以说是女子多的吧。)
- ㉮ 선생님이 그 책이 좋다고 하더라.
(老师说那本书好。)
- ㉮ 그곳 경치가 아름답다고 하더군.
(听说那里的风景优美。)
- ㉮ 철수도 갔다고 하더라.
(听说哲洙也去了。)

- 2) 当做终结语尾。表示想不到或反问。如:

- ㉮ 난 또 얼마나 많다고.
(我还以为很多呢。)
- ㉮ 난 또 너도 갔다고.

(我还以为你也去了呢。)

ㄱ 책을 잃어버렸다고?

(把书丢了?)

ㄱ 모두 떠났다고?

(都出发了?)

3. -과(와)는(复合助词)

“-과는”是“-과(와)” + “-는”结合的复合助词, 强调比较的对象。如:

ㄱ 지붕도 육지에서 보는 초가지붕과는 다르다.

(屋顶也和陆地上常见的茅草屋顶不一样。)

ㄱ 형의 성격이 동생과는 다르다.

(哥哥的性格和弟弟不一样。)

ㄱ 이곳이 바다와는 거리가 멀다.

(这里离大海远。)

4. -다는/ㄴ다는/는다는(缩略形态)

“-다고 하는”的缩略形, 修饰其后面的名词。如:

ㄱ 삼무란 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것이다.

(三无就是指没有盗贼、乞丐、大门。)

ㄱ 이것은 저녁 때쯤 돌아온다는 표시이다.

(这是傍晚时分回来的标志。)

ㄱ 철수가 서울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

(听说哲洙上汉城。)

5. -라 하면

“-라 하면”是“-라고 하면”的缩略形, “라고”表示“对象”, “하면”表示“说话”之义, 也可缩略为“-라면”。相当于汉语的“一提起……就”。如:

ㄱ 제주도라 하면 삼다 삼무를 생각하게 된다.

(一提济州岛就会想起三多三无。)

ㄱ 그는 공부라 하면 머리부터 아프다고 한다.

(他一听到学习二字就说头痛。)

ㄱ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아프다.

(一提到自私自利的人, 就头痛。)

6. -답-(后缀):

主要用在一些名词词根后, 表示其前面语词所具有的某种特性, 并使名词变为形容

词。如:

- ㉮ 학생 + 답+다 → 학생답다(像个学生)
- ㉮ 처녀 + 답+다 → 像个姑娘
- ㉮ 영웅 + 답+다 → 영웅답다(不愧为英雄)
- ㉮ 어머니 + 답+다 → 不愧为母亲

7. 자리(名词)

名词“자리”表示位置、座位、地方、痕迹、座垫、褥子、地位、职位、场合、机会、对象、比重等多种意义,由此而产生了许多惯用句。如:

- ㉮ 자리(가) 나다: 有成绩, 留痕迹。
- ㉮ 자리(가) 잡히다: 上轨道, 熟练, 生活安定。
- ㉮ 자리를 같이 하다: 同席, 坐在一起, 一起参加某种活动。
- ㉮ 자리를 걷고(털고) 일어나다: 起床, 起来, 恢复健康。
- ㉮ 자리(를) 걷다: 收铺盖, 痊愈。
- ㉮ 자리(를) 보다: 铺被褥, 躺下欲睡。
- ㉮ 자리(를) 빌다: 借机会。
- ㉮ 자리(를) 잡다: 占地, 占据。
- ㉮ 자리(를) 뜨다: 离开座位, 出去。
- ㉮ 자리(에) 눕다: 卧病, 睡觉。

练 习

1. 아래의 단어들로 단문을 지으라.

굉장히	속하다	쌓다
엮다	온화하다	회귀하다

2. 알맞은 조사나 어미들을 있는 대로 고르라.

- (1) 이 곳에서는 그들과 만나() 어려우니 저쪽에 가서 기다립시다.
(기가, 기로, 기에, 기도, 야, 므로)
- (2) 내일 떠나() 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아 모레 떠나겠다.
(는데, ㄴ다고, 라고, 다고, 려고, 러)

- (3) 이 곳에서는 쌓아놓은 담도 육지에서 보는 담() 다르다.
(보다, 하고, 같이, 마냥, 과는, 와는)
- (4) 네가 내일 북경으로 떠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왔다는, ㄴ, ㄴ다는, ㄴ다기에, ㄴ)
- (5) 이 담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 해 놓은 것이다.
(게, 므로, 기에, 도록, 게끔, 라고)

3. 알맞은 단어들을 있는 대로 고르라.

- (1) 심양은 우리 나라의 북방에 자리 () 있는 공업 도시이다.
(떠고, 보고, 잡고, 찾아, 따라)
- (2) 어제는 밤에 나가지 않았다. (A) 온 하루 비가 왔기 (B).
(A: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 까닭은, 그러나, 그러니
B: 때문이다, 까닭이다, 쉽다, 했다)
- (3) 남방은 북방보다 기후가 () 비도 많이 온다.
(차고, 사납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무덥고, 서늘하고)
- (4) 나도 여기서 일을 보고 ()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조금, 이미, 잠깐, 많이, 작게)
- (5) 이 산에는 백양나무, 버드나무 () 소나무가 많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러기에, 그러나, 그러니, 그래서)

4. 아래에 주어진 말들을 넣어 짧은글을 쓰라.

-라고 하면	그러나	-르/을 수가 없다
-기 때문이다	그러니	

5. 다음의 문장들에서 틀린 곳을 찾아 고치라.

- (1) 이 말을 듣자 그는 한꺼번에 울었습니다.
- (2) 누구든지 다 동등하게 보아야 합니다.
- (3)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잘못을 고칠 수 있습니다.
- (4) 이렇게 한다면 손실을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상품에 대한 날로 수요가 늘어납니다.

(6) 만일 무슨 일이 생기자 나를 찾아오시오.

(7) 그는 한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6. 다음 문장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틀린 곳은 밑줄을 긋고 고치라.

(1) 이 친구는 뚫어진 양말을 그냥 신고 나와서 남들의 빈축을 사는 일이 있었다. ()

(2) 온통 오후 그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

(3) 이 말을 들으니 나의 마음은 매우 기뻐한다. ()

(4) 우리는 흔히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

(5) 샐러드는 야채로 만든 것이지만 김치처럼 국물이 있는 음식이 아니다. ()

(6) 그들은 사람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개에게까지도 음식을 사다 준다. ()

(7) 그는 너무 게을러서 얼굴까지 세수하지 못합니다. ()

7.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들을 있는 대로 찾으라.

(1)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바다와 친해지지 않을 수 없다.

A.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바다와 친해질 수밖에 없다.

B.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바다와 친해야만 한다.

C.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바다와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D.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바다와 친해지면 안 된다.

(2) 제주도에서 눈을 보려면 한라산에 올라가야 볼 수 있다.

A. 한라산에 올라가면 눈을 볼 수 있다.

B. 제주도에서 눈을 보려면 한라산에 올라가야 한다.

C. 제주도는 따뜻해서 눈이 내리지 않는다.

D. 제주도에서 눈을 보려면 한라산에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다.

(3)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

- A.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 B.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다.
 - C. 내일은 날씨가 좋으리라.
 - D. 내일은 날씨가 좋기 마련이다.
- (4) 생명은 돈을 주고도 못 산다. ()
- A. 돈을 주고도 생명을 사지 못한다.
 - B. 어찌 돈을 주고 생명을 살수 있는가?
 - C. 돈을 주고 무엇인들 못 사겠는가?
 - D. 돈을 주고 못 사는 것이 생명이다.
- (5) 왕강은 한국어와 영어를 매우 잘 한다. ()
- A. 왕강은 한국어를 잘 할 뿐만 아니라 영어도 매우 잘한다.
 - B. 왕강은 한국어나 영어나 다 잘 한다.
 - C. 왕강은 한국어도 잘 하고 영어도 매우 잘 한다.
 - D. 왕강은 한국어와 영어를 여간 잘 하지 않는다.

8. 아래의 문장들을 보기와 같이 고치라.

보기: 그래서 여자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 여자가 많다고 했을 것이다

- (1) 그것은 가까운 곳에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표시이다.

- (2) 관광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사방을 둘러본다.

- (3) 유채도 제주시 서쪽에 있는 것보다 서귀포 쪽에 있는 것이 더 빨리 자란다.

- (4) 그래서 화산 때문에 생긴 천연적 용암굴도 많다.

- (5)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가보는 것이 더 좋다.

9. 아래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라.

- (1) 这幢大楼属于我们学校.
- (2) 因为风大, 用草绳编织了屋顶.

(3) 延边大学位于延吉市的西北部。

(4) 一提起济州岛，人们都想去一游。

(5) 俗话说：“百闻不如一见”，还是亲自去济州岛看一看吧。

(6) 这个地方是到了12月份才下雪。

10. 다음의 물음에 대답하라.

(1) 제주도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2) 제주도를 삼다도라고도 하는데 《삼다》란 무엇입니까?

(3) 제주도에 어느 집이나 굴뚝이 없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4) 제주도의 돌들은 어떠합니까?

(5) 제주도에 왜 여자가 많습니까?

(6) 제주도를 왜 삼무도라고도 부릅니까?

(7) 대문 대신 출입구에 긴 나무 셋을 걸쳐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8) 감나무는 어느 곳에 많습니까? 왜서?

(9) 제주도에 어떤 굴들이 있습니까?

11. 아래의 글을 읽고 요구에 따라 대답하라.

나는 겨울에 피는 꽃을 좋아한다.

물론 온실에서 사람의 힘을 빌려 자란 꽃이 아니라 비바람에 시달리며 제힘 () 핀 겨울 꽃을 좋아한다. (A) 그것도 외딴섬에서 [] 핀 꽃 말이다. 제주도에 가면 그런 꽃이 눈에 많이 띈다. (B) 나는 이 중에 수선화에 대해 이야기하

고 싶다.

바람 불고 추위가 한창인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돌담모퉁이() 해안도로변에 피는 수선화는 옷깃을 여미며 지나가는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버림받은 듯 피어있는 수선화 한두 가지를 주어도 병에 꽂아 놓으면 방안에 향기가 [] 퍼진다. (C) 이때 수선화에서 미래의 포근함을 느낀다. 한때는 이 꽃이 지천이어서 농부들의 골칫거리였는데 [] 잘 챙겨주지 않으면 겨울의 귀족인 수선화가 영영 사라질 것 같다. 한겨울 길을 걷() 길가에 핀 수선화를 만나면 수선화는 금방이라도 입을 열() 이야기를 꺼낼 것처럼 다가온다. (D)

겨울에 핀 수선화를 보면 [] 애잔해진다. 그러나 그 느낌은 만남의 정감으로 변하면서 꽃은 더 아름답게 피어오른다.

(1) 알맞은 단어를 골라 괄호[]에 써넣으라.

A. 이제 B. 가득 C. 외롭게 D. 웬지

(2) 괄호()에 알맞은 조사나 어미를 써넣으라.

(3) 밑줄을 그은 단어를 해석하고 단문을 지으라.
골칫거리:

애잔하다:

(4) “그런 꽃”은 어떤 꽃을 가리키는가?

(5) 아래의 문장을 (A), (B), (C), (D)중 알맞은 곳에 가져가라.

동백꽃, 수선화가 겨울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다.

제2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해가 바뀌고 새 천 년이 다가오자, 신문마다 지난 시대의 사건들을 간추려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 번 지난날의 일들 중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니, 중학교 3학년 때 가을 어느 날 우리 집에 전깃불이 들어온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방은 등잔 위에 올려놓은 초롱불로, 부엌은 유리를 씌운 호롱불로 밝혔으나 아무리 심지를 돋우어도 그윽음만 날 뿐 그 두꺼운 어둠을 밀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하던 일이야 끝내면 되지만 문제는 어두워진 뒤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손님이나 아버지, 어머니는 호롱불을 들고 가셨지만, 우리는 팔을 휘저어 부딪힐 것이 없나 살피고, 손으로 담벼락을 더듬으며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화장실이 뒤채 옆에 붙어 있어 그곳까지 가려면 처마 밑의 골목길을 한참 따라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담에 바짝 붙어 “여기는 굽은 곳”, “여기는 모난 돌” 하면서 손끝으로 담벼락을 쓰다듬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화장실에 도착하면 딱 한 개비 성냥을 그어 앉을 자리를 확인하고는 돌아앉아 일을 보니다.

무서우면 노래를 부르고, 기도도 하고, 어느 땐 누나나 형님으로 구성된 지원조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보는데, 다시 어둠을 헤치고 돌아와 이불 속에 쏙 들어가 한숨 자고 나면 이번엔 소변이 마렵습니다.

긴긴 겨울 밤, 참다 참다 안 되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 요강을 찾습니다. 밖은 춥고, 또 오줌은 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꼭 요강을 준비해 두곤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